03. ??? ?? ??? ???

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. 어느쪽이든 일정기간 이상 내 돈을 예금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.

단리 : 단리는 원금 (내가 맡긴 돈)을 정해진 기간동안 넣었을 때 , 거치한 기간만큼 계산해 이자를 주는 단순한 방식입니다 . 예를들어 1,000,000원을 3년간 연이율 3%로 빌려준다면 , 매년 30,000원씩 이자를 계산해 3년후 이자 90,000원을 받는 것이지요 .

복리 : 복리는 원금 뿐만 아니라 "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역시 우리가 금융기관에게 빌려준 것으로 " 치는 계산법입니다 . 다시말해 우리가 빌려준 기간만큼 우리가 금융기관에게 빌려준 돈이 점점 불어난다고 치는 것입니다 .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복리는 단리로 받은 이자와 원금을 뭉쳐서 동일한 금리로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.
이렇게 하면 단리와 무엇이 다르냐 . 첫 해에는 100만원을 3%이자로 빌려줬으니까 연말에 1,030,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. 하지만 둘째 해에는 103만원을 빌려준 것이 되고 1,060,900원을 받게 되며 , 셋째 해에는 1,060,900원을 빌려준 것이 되어 1,092,727원을 받는 것이 됩니다 .

보시면 아시겠지만 복리가 무조건 이득입니다 . 최종적으로 받는 이자가 단리는 90,000원이지만 복리는 92,727원이니까요 .
하지만 ... 금융기관은 바보가 아니고 어떻게든 이자를 적게 줘야 자신들에게 이득이니까 여러가지 조건을 걸어둡니다 . 어찌보면 복리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"이자를 계산하는 주기 "이지요 .
그래서 .... 예를들어 복리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, 이자가 발생하는 시기 (흔히 회전주기라고 합니다)를 1년 단위로 한다거나 , 아니면 돈이 다시 나왔다 들어가는 회전주기에 "시중금리로 변경한다 "는 조건을 걸지요 .
그래서 여러 저축은행들 - 그래도 은행보다는 이자를 더 줍니다 . 왜냐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- 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 높은 금리와 회전복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받게 되는 돈은 미묘하게 많은 수준입니다 .
네 . 걔네들은 돈 장사 (이자놀이)로 먹고 사는 애들입니다 . 걔네들을 우리가 이길 방법은 없어요 .

아무튼 장기간 돈을 예금 해 놓아야 하는 경우 , 그리고 앞으로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상황 이 있다면 복리가 유리하긴 합니다 . 네 , 미묘하게 유리 합니다 .
무조건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. 항상 말씀드리지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,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입니다 .

<주의 >
한국의 경우 어떤 종류든 간에 하나의 금융회사 (은행이든 저축은행이든 , 신협이든)에 들어간 돈의 총액이 5,000만원을 이하인 경우 , 그 금융회사가 부도가 나도 5,000만원까지는 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.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이 하는 일이지요 .
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남아돌아도 절대 한 금융회사에 5,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넣지는 마세요 .
이 돈은 이자까지 다 합쳐서 5,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. 5,000만원 넣어서 추가로 생긴 이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.

Revision #6
Created 2024-02-13 04:39:09 UTC by Enigma
Updated 2025-06-26 22:46:11 UTC by Enigma